

부산지역 기혼남녀의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비교연구*

이 정 숙

동의대학교 아동·가정환경학과

Comparison of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Married Men and Women in Busan

Lee, Jung Sook

Dept. of Child and Family Environment, The University of Donggeui, Busan,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verify the influence of certain variables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married men and women and to provide a basis for promoting the quality of lif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66 married men and women in Busan. The data was obtained through administering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Statistical analysis was carried out using SPSS/WIN 10.0 and included frequencies, means, standard deviation, Chronbach'a, χ^2 , t-test, and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cores for degree of income propriety, fate control orientation and material orientation of married men was higher than those of married women. The scores for degree of stress recognition and perceived equity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The score for psychological well-being of married men and women was relatively low. The sco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of married women(2.94) was higher than that of married men(2.67). Second, variables that affect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married men were degree of income propriety($p<.001$), degree of perceived stress($p<.001$), fate control orientation($p<.001$) and material orientation($p<.001$). Variables that affect psychological well-being of married women were degree of income propriety($p<.001$), degree of perceived stress ($p<.001$), fate control orientation($p<.001$) and perceived equity($p<.01$). The variable of perceived equity didn't affect psychological well-being of married men. The variable of material orientation didn't affect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married women. Third, the influence level of the degree of income propriety of married men and women was the highest among the variables.

Key words: psychological well-being, married men, married women

I. 서 론

현재 한국사회는 경제 성장이나 평균수명 연장 같은 양적이고 물질적인 성장 외에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과 그를 위한 노력

에 새로운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삶은 양적이고 물질적인 풍족감 뿐만 아니라 질적이고 정신적인 풍요로움, 또한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기인한다.

오늘날 현대사회가 산업화·정보화 사회로 변

* 본 논문은 2004년도 동의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접수일: 2004년 7월 30일 채택일: 2004년 8월 27일

Corresponding Author: Lee, Jung Sook Tel: 82-51-890-1582

Fax: 82-51-890-1579 E-mail: jslee@deu.ac.kr

확립에 따라 생활의 편의성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인간성의 상실이라는 부정적인 문제를 야기 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개인이나 가정의 복지에 대한 부정적 측면은 또한 사회문제까지 야기 시킬 수가 있으므로 각 분야에서 개인의 심리적 복지감이나 건강한 가정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개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즉 중년기 남성이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서정아 1999; 신기영 1999; 이형실 2000)가 있으나,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차이를 비교한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다. 부부 개인의 심리적 복지감은 부부간의 결혼만족도와도 관련이 있어(고정자·김갑숙 1999), 가정해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심리적 복지에 대한 비교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가정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부자관계가 주축을 이루던 가족구조가 부부중심의 가족구조로 변화하고 있으며, 예전의 가부장적인 가족제도를 중시하는 가정의 기능에서 우애적인 가정의 기능이 강조되어 부부관계도 새롭게 변화하게 되었다. 즉 부부간의 평등, 애정 및 감정적 유대 관계가 중시되고 있다. 부부관계의 상호작용 특성을 설명하는 변수들 중에서 최근 관심 있는 주제로 떠오르는 것이 부부간의 공평성문제이다. 이러한 부부간의 공평성이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문숙재 등 1997), 부부의 심리적 복지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심리적 복지감을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해 보는 것은 기혼남녀의 각자 자기관리를 위해서 더 나아가 행복한 가정생활과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연구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심리적 복지감의 정도와 그와 관련된 변인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기혼남녀의 생활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가정복지 정책과 서비스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1. 기혼남녀의 객관적 변인(연령, 교육수준, 가계소득, 자녀수)과 주관적 변인(소득적정감, 물질지향성, 운명통제지향성, 스트레스인지도, 공평성인지도)의 특성과 심리적 복지감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2. 기혼남녀의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영향변인은 차이가 있는가?

II. 문헌고찰

1. 심리적 복지감의 개념

심리적 복지감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고 다차원적이어서(박수정 1992), 현재까지 연구에서 다양하게 조작 정의되어 왔으며,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는 안녕(well-being), 복지(welfare), 생활수준(standard of life), 만족도(satisfaction), 행복감(happiness)과 같은 용어로도 연구되어 왔다. Diener(1984)는 심리적 복지감을 주관적 안녕과 동의어로 사용하여 행복감, 생활만족도, 긍정적 정서를 포함시켰으며, Umberson와 Gove(1989)는 심리적 복지감을 정서적 복지감, 만족감, 생의 의미로 크게 나누고 정서적 복지는 긍정적 정서, 인생의 행복감, 우울감, 혼란감으로, 만족감은 생활만족도, 가족생활만족도로, 생의 의미는 자존감, 무기력감으로 보았다.

철학자들은 인간 행위의 궁극적인 동기가 행복, 즉 심리적 복지감을 얻는 것이라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란 관찰자의 가치체계를 반영하는 외적 기준에 준거한다고 하여, 일반인들이 바람직하다고 규범적으로 규정하는 속성을 많이 소유할수록 개인의 심리적 복지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그래서 부나 미덕과 같은 심리적 복지의 객관적 기준을 강조하였다(Diener 1984). 그러나 1970년대 이후에 주관적 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경향에 따라 만족하고 정서적으로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면 인간의 주관적 측면인 심리적 복지수준이 증가할 수 있다는 상대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다(Andrew·Withey 1976). 그러므로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그 다양

한 심리적 복지감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첫째, 객관적 조건 및 생활영역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을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입장과 둘째, 정서적·주관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를 강조하여 정의하는 입장이다(이희정 1994).

Bryant와 Veroff(1982)는 생활경험에 대한 반응과 정신 건강에 대한 지각으로서 생활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심리적 복지감으로 정의하고, 주요요인으로서 행복감, 긴장도와 개인적 유능감을 들고, 이들 세 차원은 서로 구별되는 독립적인 측면을 나타내며, 이에 영향을 주는 생활영역이 서로 다르게 존재한다고 하였다. 즉, 행복감은 결혼관계와 관련된 영역이었고, 개인적 유능감은 부모역할과 관련된 영역으로 밝혀졌다.

신기영과 옥선화(1997)는 다양한 집단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되었던 생활만족도와 행복감 등의 개념 중 가장 중심적인 개념이 심리적 복지감이라고 하였으며, 심리적 복지감을 심리적 적응을 측정하는 개념으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정서와 지각을 강조하여, 자기 자신과 자신의 생활 전반에 대해 갖는 주관적 평가라고 하였다(신기영 1999). 신도철(1981)도 삶의 질은 당사자가 직접 경험하는 것이므로 외적으로 관찰되는 객관적 지표보다는 주관적 지표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박경태 등(1995)의 연구에서는 인간의 삶의 질이란 공정하고 객관적인 척도에 의해서만 측정될 수 없고 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각자가 느끼는 심리적 복지감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심리적 복지감은 삶에 대해 기쁘고, 희망차며, 열정적인 감정으로 구성된 유쾌하고 좋은 감정(Ross et al. 1990)이며, 개인이 자신의 생활에서 경험하는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주관적이고 긍정적인 정서(서정아 1997)를 말한다.

한편 맞벌이 부부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고정자·김갑숙 1999) 심리적 복지의 긍정적 측면으로 결혼만족도를, 부정적 측면으로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적용하여 연구하였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최규련 1999) 청소년의 심리적 복지수준의 변인으로 가정생활만족

과 자아존중감, 우울정도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심리적 복지감을 불안이나 우울감 같은 부정적 요인으로만 측정할 경우에 일반가정에 적용할 때 여러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서(이희정 1994), 최근의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에서는 생활에 대한 모든 측면의 종합적인 평가를 하기도 한다(김연화 2002). 그래서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또는 행복도 등을 하위 영역으로 구성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신기영·옥선화 1997; 신기영 1999; 이형실 2000).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개념은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다르며 그에 따라 다차원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기혼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주관적 측면을 강조하여 포괄적으로 정의하고자 하여 선행연구(서정아 1997)와 같이 개인이 자신의 생활에서 경험하는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주관적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심리적 복지감으로 정의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2.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본 연구에서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심리적 복지감과 관련된 연구에서 조사대상에 상관없이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심리적 복지감은 개인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에 대한 태도의 지표가 되는 여러 이론적 구조에 따라 측정되며, 또한 인간생활에 대한 만족감으로 객관적인 상황과 자아실현의 성취 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들이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친다(윤혜리 1996).

1)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변인

연령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연구결과 는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순기(2001), 노유자(1988), Andrew와 Withey(1976)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심리적 안녕이 높게 나타났으며, 김연화(2002)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경우에 연령이 낮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았다. 그러나 중년기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명자·박성연 1989; 신기영·옥선화 1997)에서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류지영(1996)의 연구에서도 연령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위기감, 디스트레스, 우울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연구(박경숙·김명자 1991; 이정우·최덕경 1992; 신기영·옥선화 1997)도 있으나, 교육수준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에는 차이가 없는 결과를 나타내는 연구(김연화 2002; 이정숙 2002)도 있다.

가계소득 수준과 심리적 복지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가계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가 높게 나타났다(김명자 1989; 신기영·옥선화 1997).

Mills 등(1992)의 연구에서도 경제적 문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이 심리적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 변인

심리적 안녕은 개인의 사회적 배경과 가치 체계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상대적인 것으로서, 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의 절대량보다는 준거집단과의 비교를 통하여 평가된 주관적인 것(김명숙 1981)이므로 소득적정감이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운명통제지향성은 심리적 복지감과 유사한 개념인 생활에 대한 만족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물질지향성은 부적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이정우 등 1998). 김연화(2002)의 연구에서도 운명지향성은 심리적 복지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른 선행연구(이정숙 2002)에서도 운명통제지향성과 물질지향성은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또한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심리적 복지, 부적응 증상, 우울증 등의 개념과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으며(하현숙·김득성 1996), 기존 취업여성과 남성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감을 나타내고 있다(Windle·Dumenci 1977). 직장가 가정의 스트레스원은 심리적 복지

와 관련이 있었으며, 중국에서의 직장의 중요성에 기인하여 남녀 모두 가정보다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원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Lai 1995). 그러나 이형실(2001)의 연구에서는 부부관계 스트레스와 직업 스트레스는 심리적 복지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력은 성별에 관계없이 직업 스트레스보다 부부관계 스트레스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평성인지도는 심리적 복지감과 유사한 개념인 생활에 대한 만족감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정진희 2003), 전지원과 이정우(2000)의 연구에서도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공평성이 가정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평성의 연구는 대부분 국외에서 시작되었으며, 결혼관계에서의 공평성이 결혼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일관적인 결과가 나타나 공평성인지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Hatfield et al. 1982; Pererson 1990; Aida·Falbo 1991). Van Yperen과 Buunk(1990)는 결혼만족도가 공평성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공평성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공평성인지와 심리적 복지감과의 관계를 추론하여 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용어의 조작적 정의

1) 소득적정감 : 현재의 소득이 가정생활에 필요한 것을 어느 정도 구입할 수 있으며 가정생활을 유지하기에 얼마나 적절한지 그리고 이웃과 우리나라의 생활수준과 비교하여 자신의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적정한지에 대한 지각정도를 의미한다.

2) 물질지향성 : 인간보다 물질에 관심을 두고 성공에 대한 척도로서 실질적 결과를 중요시하며 물질적 안전 풍요 소비 등의 물질주의적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

3) 운명통제지향성 : 인간이 환경이나 자연에 순응하고 복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운명이나 자연을 통제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4) 스트레스인지도 : 인간과 개인을 둘러싼 가족·경제·환경·사회관계 등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일상적 평형상태에서 벗어나서 일상생활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긴장이나 부담감을 의미한다.

5) 공평성인지도 : 공평성이란 개인의 기여에 비례하여 보상을 분배하는 것으로, 교환관계 내의 모든 참여자가 관계로부터 동등한 상대적 이익을 받는다고 인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6) 심리적 복지감 : 개인이 자신의 생활에서 경험하는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주관적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의미한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질문지로서 조사대상자의 주관적·객관적 변인과 심리적 복지감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관적 변인 중 소득적정감은 선행연구(이정우 등 1998)에서 작성한 4문항이며,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9이다. 5점 Likert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소득적정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물질지향성과 운명통제지향성은 선행연구(임정빈 1987; 이명숙 1995; 이정우 등 1998)를 근거로 하여 문항을 구성한 후 신뢰도 검증을 하였다. 물질지향성은 4문항으로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71이며, 운명통제지향성은 5문항으로 Cronbach's α 는 .75이다. 5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물질지향성과 운명통제지향성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스트레스인지도는 선행연구(김경숙 1993; 이윤미 1995)를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11문항으로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1이다. 5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인지도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공평성인지도는 선행연구(문숙재 등 1997; 박희정 1998; 강기연 2000)를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남편/부인이 훨씬 더 그렇다', '남편/부인이 약간 더 그렇다', '서로 비슷하다', '내가 약간 더 그렇다', '내가 훨씬 더 그렇다'의 총 5개

유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3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평성인지도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수는 9개로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63이다.

심리적 복지감 척도는 이희정(1994)의 긍정적 정서를 근거로 한 서정아(1997)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으로 구성된 후 신뢰도 검증을 하였다. 11개 문항이며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2이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부산시에 거주하며 결혼 후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기혼남녀로 부산시 15개구를 고려하여 임의로 선정하였다.

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조사 실시에 앞서 2002년 4월 22일에서 29일까지 남녀 각각 50명씩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들의 응답을 토대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2002년 5월 13일에서 28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남녀 각각 200부씩 총 400부를 배부하였으나 기재가 미비한 자료를 제외한 366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ronbach's α 계수,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χ^2 , t-test,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기혼남녀의 객관적 변인과 주관적 변인의 특성과 심리적 복지감의 일반적 경향

1) 기혼남녀의 객관적 변인과 주관적 변인의 특성

(연구문제 1)에서 조사대상자의 객관적 변인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을 살펴보면 기혼남녀 모두 40대가 가장 많았다. 남성은 60.3%, 여성은 55.4%였으며, 30대는 남성이 15.9%, 여성은 37.9%이고, 50대이상의 남성은 23.8%, 여성은 6.8%로 나타나 여성보다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 of objective variables by gender

variables	class	total	male	female	N(%)
Age	under 39	97(26.5)	30(15.9)	67(37.9)	34.07***
	40-49	212(57.9)	114(60.3)	98(55.4)	
	over 50	57(15.6)	45(23.8)	12(6.8)	
	total	366(100.0)	127(100.0)	96(100.0)	
	M(SD)	43.35(5.72)	45.35(.42)	41.20(.37)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86(23.5)	34(18.1)	52(29.4)	14.70**
	high school	167(45.6)	82(43.6)	85(48.0)	
	university	80(21.9)	48(25.5)	32(18.1)	
	above university	32(8.7)	24(12.8)	8(4.5)	
	total	365(99.7)	188(100.0)	177(100.0)	
	M(SD)	12.38(3.01)	12.93(.22)	11.79(.22)	-
No of Children	1	14(3.8)	10(5.3)	4(2.3)	5.02
	2	263(71.9)	127(67.2)	136(76.8)	
	above 3	89(24.3)	52(27.5)	37(20.9)	
	total	366(100.0)	189(100.0)	177(100.0)	
	M(SD)	2.25(.64)	2.27(.04)	2.24(.05)	
Family Income	under 2,000,000	78(21.3)	35(18.6)	43(24.3)	3.95
	under 2,500,000	95(26.0)	48(25.5)	47(26.6)	
	under 3,000,000	65(17.8)	36(19.1)	29(16.4)	
	under 3,500,000	49(13.4)	23(12.2)	26(14.7)	
	above 3,500,000	78(21.3)	46(24.5)	32(18.1)	
	total	366(100.0)	189(100.0)	177(100.0)	
	M(SD)	273.38(137.09)	280.45(10.34)	265.88(9.91)	

※ *p<.05 **p<.01 ***p<.001
 ※ 계가 다른 것은 무응답 자료 때문임

남성의 평균연령이 약 4세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기혼남녀 모두 고졸이 가장 많았으며, 남성은 43.6%, 여성은 48.0%로 나타났다. 남성은 대졸이 25.5%였으며, 여성은 18.1%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평균 학력이 여성보다 높았다.

자녀수는 남성과 여성 모두 2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남성은 67.2%, 여성은 76.8%로써 남성과 여성이 유사한 것을 보이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가계소득을 살펴보면, 기혼남성은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5.5%, 그 다음으로 30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이 24.5%였으며, 기혼여성은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이 26.6%, 그 다음으로 200만원 미만이 24.3%로 나타났으며, 남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연구문제 1)의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변인의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물질지향성과 운명통제지향성은 기혼남성과 기혼여성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물질지향성은 여성이 2.94점(5점 만점), 남성이 2.67점, 운명통제지향성은 여성이 3.18점(5점 만점), 남성은 2.73점으로 여성이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소득적정감도 기혼남성과 기혼여성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여성이 3.89점(5점 만점), 남성이 3.57점으로 역시 여성이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평성인지도와 스트레스인지도는 기혼남성과 기혼여성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기혼남성은 2.26점(3점 만점)과 2.26점(5점 만점)이고, 기혼여성은 2.27점과 2.34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The general character of objective variables by gender

variables	total	male	female	t value
	M(SD)	M(SD)	M(SD)	
material orientation	2.79(.81)	2.67(.77)	2.94(.84)	-2.49*
fate control orientation	2.93(.79)	2.73(.71)	3.18(.82)	-4.32***
degree of income propriety	3.71(.65)	3.57(.61)	3.89(.65)	-3.76***
degree of perceived equity	2.26(.36)	2.26(.36)	2.27(.37)	-.17
degree of perceived stress	2.30(.64)	2.26(.62)	2.34(.66)	-1.17

※ * p<.05 *** p<.001

(연구문제 1)의 기혼남녀의 심리적 복지감의 일반적 경향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The general character of psychological well-being by gender

variable	total	male	female	t value
	M(SD)	M(SD)	M(SD)	
psychological well-being	2.79(.81)	2.67(.77)	2.94(.84)	2.22*

※ * p<.05

기혼남녀의 심리적 복지감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혼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은 평균 2.67점(5점 만점)으로 낮은 편이고, 기혼여성은 2.94점으로 중간 정도 수준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감은 취업모의 긍정적 정서 수준이 중간보다 약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이희정(1994)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김연화(2002) 연구의 결과보다는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기혼남성의 심리적 복지감도 서정아(1997) 연구의 기혼 직장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과 김연화(2002) 연구에서의 남편의 심리적 복지감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여성이 남성보다 심리적 복지감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선행 연구(류연지 1996; 김연화 2002)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 복지감의 하위영역 구분의 유무에 따른 차이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심리적 복지감을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지 않았으며, 김연화(2002) 연구에서는 심리적 복지감의 하위영역으로 부부가 지각하는 가정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으로 구분하고 있다.

2. 기혼남녀의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영향변인 (연구문제 2)의 기혼남녀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기혼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소득적정감($\beta=.37$)·운명통제지향성($\beta=.33$)·스트레스인지도($\beta=-.29$)·물질지향성($\beta=.21$)으로서, 이들을 포함한 4개 변인의 설명력은 41.9%로 나타났다. 즉 기혼남성은 소득적정감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인지도가 낮을수록, 운명통제지향성과 물질지향성이 강할수록 심리적 복지감 수준이 높았으며, 소득적정감의 예측력이 가장 높았다.

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소득적정감($\beta=.34$)·운명통제지향성($\beta=.29$)·스트레스인지도($\beta=-.27$)·공평성인지도($\beta=.18$)로서, 이들을 포함한 4개 변인의 설명력은 39.3%로 나타났다. 즉 기혼여성은 소득적정감 수준이 높을수록, 운명통제지향성이 강할수록, 스트레스인지도가 낮을수록, 공평성인지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감 수준이 높았으며, 역시 소득적정감의 예측력이 가장 높았다.

기혼남녀의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영향변인을 비교해 보면, 기혼남성의 경우에 주관적 변인 중에서 공평성 인지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물질지향성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남성의 경우, 물질지향성이 강할수록 심리적 복지감 수준이 높게 나타난 점은 물질지향성이 약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연구(이정우 등 1998)와 다른 결

Table 4. The effect of the related variables to the psychological well-being

variables		gender		female	
		male (N=189)		(N=177)	
		B	β	B	β
objective variables	Age	-.02	-.10	.00	.00
	Education Level	.00	.01	-.00	-.00
	No. of Children	.12	.09	.11	.06
	Family Income	-.00	-.05	.00	.00
subjective variables	material orientation	.24	.21***	.00	.05
	fate control orientation	.52	.33***	.52	.29***
	fate control orientation	.45	.37***	.48	.34***
	degree of perceived equity	.14	.06	.53	.18**
	degree of perceived stress	-.43	-.29***	-.43	-.27***
F		13.12***		11.52***	
R ²		.419		.393	

※ * p<.05 **p <.01 ***p <.001

과를 보이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사회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제공해 주었으나 반면에 물질적인 부의 성취가 개인의 성공으로 간주하게 되는 부정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물질적인 가치성향은 소비욕구를 자극하게 되어 만족감을 추구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Table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공평성인지도수준은 기혼남성과 기혼여성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심리적 복지감에는 여성만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한 연구(정진희 2003)에서 정서적 공평성인지도와 가사분담 공평성인지도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공평성이 결혼만족의 예측변인이라는 연구(Davidson 1984)와 일맥상통한다고 보겠다. 또한 선행 연구(이정숙 2002)에서 가사분담관리행동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감 수준이 높게 나타난 점을 볼 때,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에 가정에서의 역할분담의 공정성이 개인의 만족을 더욱 높여줄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기혼남녀 모두 소득적정감이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 점은 현재 자기 가정의 객관적인 생활수준보다는 현재의 소득이 가정생활을 유지하기에 얼마나 적정한지 그리고

타인이나 준거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자기 가정의 생활수준을 어떻게 지각하는지의 비교개념이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운명통제지향성이 강할수록 심리적 복지감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개인의 신분이나 성별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는 전통사회와는 다르게 오늘날은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근간으로 자신의 노력에 따라 운명을 개척하려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대단히 어려운 현 시점에 개인의 노력으로 대처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삶을 영위하려는 운명통제지향성이 높을수록 기혼남녀 모두 심리적 복지감의 수준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운명을 개척하려는 노력이 개인의 만족증진은 물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길로 생각된다.

스트레스인지도가 낮을수록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감 수준이 높게 나타난 점은 스트레스인지도가 낮을수록 생활만족도 수준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이정우 등 1998)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스트레스는 의학·심리학 등 학문적인 관심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 흔히 거론되는 주제이며, 가정과 직장 등의 사회생활에

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다양하다. 그러나 가족이 스트레스적 상황에 접하더라도 개인적·심리적 자원을 어떻게 인지·평가하는지에 따라 스트레스를 적게 느낄 수 있다는 연구 결과(전세경 1988)를 고려해 볼 때, 가족집단이 공동체적 유대감을 강화시켜 스트레스를 관리한다면 보다 더 기혼남녀의 심리적 복지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심리적 복지감의 정도와 그와 관련된 변인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기혼남녀의 생활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가정복지 정책과 서비스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남녀의 객관적 변인인 연령은 40대, 학력은 고졸, 자녀수는 2명, 가계소득은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주관적 변인 중에서 소득적정감, 운명통제지향성 및 물질지향성은 기혼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혼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은 평균 2.67점(5점 만점)으로 낮은 편이고, 기혼여성은 2.94점으로 중간 정도 수준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기혼남성은 소득적정감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인지도가 낮을수록, 운명통제지향성과 물질지향성이 강할수록 심리적 복지감 수준이 높았으며, 기혼여성은 소득적정감 수준이 높을수록, 운명통제지향성이 강할수록, 스트레스인지도가 낮을수록, 공평성인지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영향변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기혼남녀의 경우, 소득적정감 수준이 심리적 복지감에 가장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객관적 변인인 소득 자체보다는 현재의 소득이 가정생활에 필요한 것을 어느 정도 구입할 수 있으며 가정생활을 유지하기에 얼마나 적정한지 그리고 이웃과 우리나라의 생활수준과 비교하여 자신의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적정한지에 대한 주관적인 인지가 심리적 복지감에 중요하다. 따라서 자신의 자원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한국인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현실을 바르게 인식하여 우리사회에서 지향해야 할 가치의식을 확립하여 이에 따른 행동실천이 요구된다.

운명통제지향성도 기혼남녀의 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인생이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宿命론적인 전통적 가치의식보다는 자신의 미래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고 개척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노력은 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스트레스인지도가 낮을수록 기혼남녀의 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스트레스 대처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가 요구된다.

그러나 기혼여성과는 다르게 기혼남성의 물질지향성이 강할수록 심리적 복지감 수준이 높게 나타난 점은 물질적인 가치성향은 소비욕구를 자극하게 되어 만족감을 추구하게 될 수도 있는 현대 자본주의사회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물질적인 부의 성취가 개인의 성공으로 간주하게 되는 부정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그리고 개인의 기여에 비례하여 보상을 분배하는 것으로, 교환관계 내의 모든 참여자가 관계로부터 동등한 상대적 이익을 받는다고 인지하는 공평성인지도는 기혼여성만이 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행연구(이정우·전지원 2000)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사회가 여전히 내면적으로는 남성우위적의 여성희생을 강요하는 가족주의 가치의식이 내재하고 있으므로 기혼남성보다는 기혼여성의 공평성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기혼 여성과 남성에게 있어서 스트레스인지도, 가치지향성, 공평성인지와 심리적 복지의 관련성을 밝힌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겠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조사대상자가 부산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일반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조사대상자를 확대시킨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연구자에 따라 심리적 복지감의 개념이 다양함에 따라 심리적 복지를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선행연구들과 생활관리적 측면에서 전체적인 심리적 복지감 척도를 사용한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설명력이 미약하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개인 및 가정생활 변인에 대하여 좀 더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에 따라 기혼남녀의 심리적 복지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강기연(2000). 맞벌이 부부의 공평성인지, 의사결정 참여 및 가정생활만족도.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고정자·김갑숙(1999). 부부의 심리적 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6), 59-76.
 김경숙(1993). 취업주부의 가정관리능력과 행동유형에 관한 체계론적 접근.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김명숙(1981). 한국인의 삶의 질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김명자(1989). 중년기 위기감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김명자·박성연(1989). 중년기 위기감 및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1), 97-118.
 김순기(2001). 기혼자녀가 지각하는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아정체감이 결혼 후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김연화(2002). 도시부부의 생활예절수행·가족체계역동성·심리적 복지감. 숙명여대박사학위논문.
 노유자(1988). 서울지역 중년기 성인의 삶의 질에 관한 분석.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류지영(1996). 중년기 부인의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

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문숙재·허경옥·홍윤정(1997). 부부간 가사노동분담과 공평성 인지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5(2), 345-358.
 박경숙·김명자(1991). 중년기 여성의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65-80.
 박경태·박병영·유석춘·이선이·이영희(1995).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양적 지표들의 재검토. 한국인의 삶의 질. 사회발전연구 창간호,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박수정(1992). 중년기 부인의 사회관계망과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박희정(1998). 한국 부부간 공평성 인지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107-122.
 서정아(1997). 가족 및 직업 특성이 중·장년기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신기영(1999).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의 보상비용에 따른 심리적 복지.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신기영·옥선화(1997). 중년기 주부의 가족역할 수행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111-128.
 신도철(1981). 한국인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 정경문화 5월호, 26-47.
 윤혜리(1996). 취업주부의 시간관리전략과 심리적 복지감.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이명숙(1995). 도시 전업주부의 가치지향성·가정관리전략·가정관리만족도.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이윤미(1995). 배우자에 대한 가정내 역할기대·수행평가의 차이가 부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이정우·최덕경(1992). 도시주부의 가정생활문제인지와 스트레스 정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1), 115-130.
 이정우(1997). 최신 가정경영학. 서울:수학사.
 이정우·이정숙·박미금(1998). 한국 도시인의 가치지향성 및 생활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1), 15-31.
 이정우·전지원(2000). 도시주부의 부부간 공평성인지·가정관리행동 및 가정생활만족 대한가정학회지 38(9), 57-74.
 이정우(2000) 생활문화와 예절. 숙명여대 출판부.
 이형실(2000). 기혼 취업여성의 가족생활 및 직업생활 경험과 심리적 복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3), 15-23.
 이형실(2001). 기혼 취업여성과 남성의 가족 및 직업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3), 15-23.
 이희정(1994).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긍정적 정서와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임정빈(1987). 가치성향 의사결정양식 및 가정생활만족.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전세경(1989). 가족스트레스와 가족자원 및 적응에

-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 정진희(2003). 판매직 주부의 공평성인지도·역할스트레스 및 생활만족도.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최규련(1999).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모 및 자녀요인,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수준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2), 99-111.
- 하현숙·김득성(1996). 맞벌이부부의 역할갈등과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4(4), 309-326.
- Aida Y, Falbo T(1991). Relationships between marital satisfaction, resources, and power strategies. *Sex Roles* 24, 43-56.
- Andrew FM, Withy S(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N.Y.:Plenum Press.
- Bryant FB, Verloff J(1982).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A socio-historic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4), 653-673.
- Davidson B(1984). A test of equity theory for marital adjustment.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7, 36-42.
- Diener ED(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Hatfield EM, Greenberger D, Traupmann J, Lambert P(1982). Equity and sexual satisfaction in recently married couples. *Journal of Sex Research* 18, 18-32.
- Lai(1995). Work and family rol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urban China.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6, 11.
- Mills RJ, Gransmick HG et al(1992). The effect of gender, family satisfaction, and economic strain on psychological well-being. *Family Relations* 41(4), 440-445.
- Pererson CC(1990). Husband's and wife's perception of marital fairness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1(3), 179-188.
- Ross CE, Mirowsky J, Goldsteen K(1990). The impact of the family on health; The decade in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1059-1078.
- Umberson D, Gove WR(1989). Parenthood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Family Issues* 10(4), 440-462.
- VanYperen NW, Buunk BP(1990). A longitudinal study of equity and satisfaction in intimate relationship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0, 287-309.
- Windle M, Dumenci L(1997). Parental and occupational stress as predictors of depressive symptoms among dual-income couples: A multilevel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625-634.